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승환



현재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은 지난 세기 혁명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이다. 무선전신, 비행기, 플라스틱, 자동차, TV와 페니실린의 발명은 세계적 대중잡지 라이프가 선정한 '역사를 뒤집은 100대 사건'에 들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전자혁명의 산물인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MP3 등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미래 위해 기초과학에 투자하라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적 연구 자원이 주로 응용개발 및 목적 지향적 중대형 규모의 연구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창의성이 힘을 발휘하는 개인 주도의 소규모 기초 연구가 소외되고, 수학·물리·화학 등 순수 기초과학 분야의 다수 연구자들이 점차 고사되고 있다.

연구효율이 월등하게 높다. 현재 대학에 소속된 기초과학 연구인력 중 단지 4.4%만이 개인 연구자금을 받고 있어, 절대 다수가 연구자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진연구자와 지방에 소재한 연구자의 경우 진입 장벽과 높은 경쟁률 그리고 지원의 불연속성 때문에 연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력 대비 과학의 질적 수준은 세계에서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다. 고등교육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까운 미래에 과학기술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기초연구 지원도 선진국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기초과학 지원을 통해 연구효율이 높은 대학의 잠재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고, 기초과학 기반연구 인력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신청 후 지원이라는 수동적 방식을 탈피하여 과감하고 능동적인 선제 투자로 기초 연구 잠재역량을 대규모로 발굴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사무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연구개발 투자 인색한 지역기업 미래있나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최근 호남지역 상장법인 22개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1.43%로, 전년에 비해 0.01% 감소했다.

정부 '미 충격사건' 수습에 최선 다해야

미국 버지니아공대에 재학중인 한국 교포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33명이 숨지고 최소 17명이 부상한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자행될 수 있는 것인지 놀랍고 어이가 없다. 법인이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교포인만큼 우리로서 할 말이 없게 됐다.

한다면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연구개발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기여도의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상정하듯 전 세계적으로 개방과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미 충격사건' 수습에 최선 다해야

이런 사건이 우리 교포들의 인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에는 지금 수백만명의 교포가 살고 있고 유학생도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언론, 여론지도자들은 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일그러진 시각으로 보는 등 반한(反韓)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길 당부한다.

기고

이희성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민간신앙에서부터 불교·유교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상의 산실입니다. 원래 백두산의 맥세(脈勢)가 흘러내려 이루어진 이림에서 출발했다고 하며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높은 스님의 처소를 상징, 방장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

역에 안전지대를 확충하고 교통시설, 표지판 등을 20여개소에 설치했으며 LED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하는등의 조치로 사고위험성을 줄였습니다.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안내도 제작과 홍보전단 배포 및 안전띠 착용 홍보와 함께 불시 음주단속으로 안전운행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기고

문병민



다가오는 4월19일은 4·19혁명 제47주년이 되는 날이다. 4·19혁명은 3·15부정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독재와 경제적 파탄이 그 원인이기도 하였다.

이다. 이렇게 민주, 자유, 정의, 진리의 가치를 들고 일어나 기어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려 버렸으니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난하다 할 것이다. 그 당시 광주지역에서는 광주교 정문에서 시작된 대모대가 금남로와 황금동 등지에서 군,경찰들의 격렬한 진압과 발포로 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그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결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된 것이다.

지리산 여행 두배로 즐기기

자연재해로 하절기에 폭우때마다 20여개의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오는 거대한 물로 인해 피서객을 덮치는 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인위적 사고로는 지리산 일주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가장 크다 하였습니다. 도로로는 연간 40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양방향 계속되는 급경사·급커브의 구조적 문제와 운전미숙, 정비 불량으로 인한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사고로 소중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띠 착용, 하행길에 엔진브레이크 차단 기어를 꼭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오는 20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이 지나면 21일부터는 불시 음주단속과 안전띠 미착용, 관광버스 가무행위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반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지리산에 오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즐기며 인자한 자는 산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을 찾는 것인 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과 버스내 가무행위 금지, 안전띠 착용, 하행길 엔진브레이크 차단기사용, 초행길 안전운행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리산을 찾는 분들 모두가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여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4·19혁명 기념일을 맞으며

젊은 젊은 학생들이 하여금 주도가 되게 하여 독재정권에 정면으로 맞서게 한 것이다. 막상 앞장서야 할 정치지도자나 지식인들은 이승만 정권에 대해 눈치보기 바쁠 때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행동으로써 독재정권의 부당함에 대항하였던 것이다.

그로인해 서울, 마산, 광주를 4·19혁명 3대 발상지로 표현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추모제와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지만, 벌써 47년이 지나 점차 우리들의 기억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 따라서 금년 47주년 기념식을 계기 삼아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로 4월 19일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광주의 민주적 성지로 계속 가꾸고 보존해 나가자는 다짐을 해 보면 어떨까 한다.

4·25 재·보궐선거에 관심 갖고 참여하자

앞으로 일주일후면 4·25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선거는 전국적으로 55곳에서 56명을 선출한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국회 의원 선거가 무안·신안지역, 광역의원 선거는 광주 남구 제 1선거구, 나주시 제 2선거구이고 기초의원 선거는 광주 서구 가·다 선거구와 남구가 선거구이며 그 외 4곳에서 실시된다.

정통성에 흠결을 가져와 책임있는 지방자치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오는 4월25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이어서 투표일이 저조하지 않을까 걱정이 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세대별로 투표안내문과 함께 동봉하는 투표참여 홍보전단지 받든지 읽어 보고 유권자가 원하는 자를 투표당일 투표부터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잇따른 간호사 역외유출 의료 서비스 공백 우려된다

얼마전 병원에 갔다가 병원 정문앞에 붙어있는 간호사 모집 안내문을 봤다. 간호사인 조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후 현재 집에서 쉬고 있던 터라 관심이 생겨서 "정말 간호사가 부족하냐"고 물었더니 원무과 직원은 "아는 간호사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

서울쪽 간호사들은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지방 간호사들이 서울의 그 빈자리를 채우거나 또는 미국으로 갈려고 영여학원에 다니다 보니 졸지에 지방의 병원들만 간호사가 부족한 지경이라고 했다. 전남지역 농촌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이 많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간호사마저 도시로 다 빠져나갈 경우 지방의 의료 현실이 더 열악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정통성에 흠결을 가져와 책임있는 지방자치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정통성에 흠결을 가져와 책임있는 지방자치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無等鼓

화교(華僑)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부터다. 한국 화교의 시초는 1882년 임오군안이 발발했을 때 청나라 군대를 따라온 40여명의 상인이었다. 국내 화교는 한때 20만명이 넘을 정도로 번창했으나 지금은 상당수가 한국을 떠났다.

대회는 화상대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175개국 670여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결해 '원·원'하자는 취지에 서다.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한상은 살아 있는 정보망이자 귀중한 인적 자원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재미 화교 상인들은 미국시장을 공략하는 전초기지가 된다.

한상(韓商)대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화교 경제인들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게 세계화상대회다. 지난 2005년에는 서울에서 8차 대회를 치르기도 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세계한상(韓商)대회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지난 주 여수를 방문했던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시간으로 한결같이 교통과 숙박시설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언제까지 빈약한 인프라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